

재정 조기집행 총력... SOC 설계·발주 기간 단축

정부가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연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1분기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14조원 늘어난 올 1분기 재정 집행을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률을 중점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발주·계약체결 기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사업은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과 출연사

업에 대한 실행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51조3000억원(18.4%)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46조원·16.5%)보다 5조3000억원(1.9%포인트) 초과한 수준이다.

지방재정은 연간계획(168조원) 중 지난달 말까지 22조2000억원(13.2%)을 투입했다.

송 차관은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재정이 민간의 내수와 투자를 견인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무실~만종 도로개설 저가심사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비는 '신동이종건' 수주 유력

조달청은 22일 최저가 낙찰제방식으로 마지막 개찰물량인 원주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간) 개설공사 가격개찰을 집행하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저가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 수요의 이 공사는 원주시 무실동 시청사에서 호저면 만종리 일원까지 총연장 3.216k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430억원 규모다.

개찰결과를 보면, 모두 35개 건설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삼한기업이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 75.123%(344억 7155만9100원)로 저가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대보건설과 태평양개발 등 11개사가 75%대 초반의 투찰률을 적어냈고, 금광기업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8개 건설사가 75% 이상 76% 미만으로 투찰했다.

이 외에는 4개사가 76~80% 미만 투찰률을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11개사는 모두 80% 이상의 투찰률을 적어냈다.

조달청은 이 같은 투찰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저가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동이종합건설(대표 김장욱)은 이

날 광주지방조달청이 개찰을 집행한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수요기관 전남 광양시) 수주에 한 발짝 다가섰다.

신동이종합건은 예가 대비 80.380%의 투찰률로 225억3687만6430원을 적어내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다.

또 강원지방조달청이 강원도(원동해본부) 수요로 집행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건축)는 ㈜신일(대표 공운규)이 적심 1순위로 수주에 도전한다. 신일의 투찰금액은 124억5827만5000원으로, 투찰률은 81.403%를 기록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위철)은 강원 화천군(환경수도사업소)이 집행한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 입찰에서 적심 1위에 올라 수주를 바라보게 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80.698%의 투찰률로 204억 7746만4000원을 써냈다.

또 전남 나주시(하수도사업소)가 집행한 나주 중부처리구역(1~4, 12)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에서는 80.011%의 투찰률로 166억4045만200원을 써낸 일군토건(대표 여태남)이 수주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봉승권기자

아하! 그렇구나

선급금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사건 개요 원고는 2007. 12. 29. 소의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의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소의 회사와 피고는 위 각 선급금에 관한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9. 2. 16.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원고는 2009. 8. 21. 소의 회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소의 회사에 미지급한 기성금 상당은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되어야 한다며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의 회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소의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약 6억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 되었으므로 그 채권금지 효력에 의하여 위 압류 금액만큼은 원고가 소의 회사에 지급할 기성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쟁점 선급금보증 계약상의 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제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미지급 기성대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압류금액만큼을 공제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실 검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밝히면서(대법원 1999.12.29. 선고 99다55519판결 등 참조),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뿐 하자보수 보증금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급금보증 계약상의 보

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또한 대법원은 보증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 채무에 대하여 '미회수 채권액 중 미지급 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지급 기성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선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총 기성고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기성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73490판결 등 참조),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 원고가 소의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기성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은 피고의 보증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에 대하여 소의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2009. 9. 14. 5,50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을 선급금의 공제대상인 미지급 기성금에서 제외한 것은 선급금 보증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이 판결은 계약 상대방에게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선급금반환을 보증한 자에게 선급금보증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미지급 기성대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금액 상당을 제외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임수정 법무법인(유한) 통인 변호사

